음식은 불교서 어떻게 인식됐을까



주목! 학술서

공만식의 〈불교음식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특유의 공양 방식인 발우공양의 모습. 불교 음식은 식육 금지의 채식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2600년 불교사 안에서 음식에 대한 인식 지평은 매우 넓다.

불교와 음식' 고찰한 연구서

초기·대승불교 문헌들을 통해

불교 음식에 담긴 의미 추적

식육 인식, 시대에 따라 변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을 넘어 '미식(美食)'이라는 욕망 충족까지 이루는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에서는 계율에 따라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식육 금지 문화이다. 그렇다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부터 식육을 금지했을까.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서가 나왔다.

인도 델리대(박사)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영국 런던대 SOAS와 킹스 칼리지에서 음식학 및 불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공만식이 내놓은 〈불교음식학-음식과 욕망〉은 '불교에 있어 음식은 어떤 존재인가'를 추적한 국내 최초 연구서이다.

그간 한국학계에서는 '불교와 음식' 관련 논문이 몇몇 발표되긴 했으나 그 수가 미미했고, 전문적 접근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음식학〉은 '음식학'과 '불교학'을 전공한 저자가 둘을 접목해 불교가 바라보는 음식의 문제를 삼장(三藏)에 근거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불교 우주론 속에 녹아든 음식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빨리어 경전인 〈디가 니까야〉의 〈아간냐경〉을 분석한다. 불교의 창조신화로 자주 언급되는 이 경전에서 욕계(欲界) 최초의 중생은 배설물이 생기지 않는 '미묘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음식의 질이 하락해 '거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 몸 안에 배설물이 형성되어 배출할 필요가 생기자 남녀의 성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전에 담긴 불교의 음식에 관한 인식은 "태초의 낙원과 같은 상태를 상실케 한 결정적 요인은 음식을 먹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먹는 행위를 금지시키지 않았다. 부처가 정각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람은 유미죽을 공양한 수자타였다.

부처는 '음식의 적당한 섭취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험은 불선법(不善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음식의 적당한 섭취는 깨달음을 얻는 데 이바지하지만 음식 섭취의 양을 과도하게 축소하게 되면 육체적·정신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기 음식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빨리어 율장부터 근본설일체유부 율장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관련된 율장을 살핀 3장부터 5장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식육 금지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다. 실제 빨리어 문헌에는 '삼종정육(三種淨肉)'이라 불리는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불교 수행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식육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대승불교에 와서 이뤄진다.

다만 초기불교 당시에도 십종육(十種肉, 사람·코끼리·말·개·뱀·사자·호랑이·표범·곰·하이에나)이라는 금지된 동물들이 있었다. 저자는 십종육 같은 금지 조항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봤다. 코끼리와 말의 경우 당시 인도에서 왕권을 상징했던 동물이었으며, 개는 혐오스런 동물로 인식됐다.

또한 초기불교 당시 우유 등 유제품은 허용됐으나, 대승불교 경전 〈능엄경〉에서는 유제품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인도·중국 간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음식 금지 등의 계율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 재가 사회의 인식이 계율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빨리어 율장과 각 불교 부파 계율의 동일 조항, 대승불교 문헌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2,600여 년의 시간 동안 당시·당처의 시각에 영향을 받으며 계율의 내용이 변화했음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야불교 전래와 남방 가능성 고찰

東亞불교학회, 10일 학술대회

가야불교가 남방을 통해 전래됐을 가능성을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이찬훈)는 3월 10일 가야대 대강당에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위한 해양문화교류와 불교전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남아시아 국가 내 타밀족 불교의 중요성(판니어셀밤, 인도 마드라스대) △가락국과 아유타국의 해양문화교류 가능성-파사석탑을 중심으로 (이거룡, 선문대) △고대 해양 실크로드와 말레이반도 (황순일, 동국대) △불교의 한국전파와 동아시아 해양문화 전파경로 (석길암, 동국대)로 진행된다. 논평은 이지은(한국외대), 한지연(금강대), 장재진(동명대), 강대현(위덕대) 교수가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불교문화진흥원과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세 번째 학술대회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가야불교에 대해서 중국 북방전래가 아닌 해양을 통한 남방 전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것이 입증되면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의 교류사를 다시 되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日 보물창고엔 무엇이 있을까

국립문화재硏, 7일 정창원 소장 유물 국제심포지엄

"국내 알려지지 않은

정창원 유물 연구 지속"

일본 천왕가의 보물창고로 알려진 정창원(正倉院)의 소장 문화재 현황과 역사 속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3월 7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서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정창원을 통해 밝혀지는 백제·통일신라의 비밀'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창원'은 원래 창고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일본 동대사(東大寺)의 정창원(正倉院)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특별한 창고의 유래는 756년에 세상을 떠난 쇼무(聖武)천왕의 49재에 명복을 빌기 위해 그의 비인 고묘왕후가 왕의 보물들을 동대사 대불에 헌납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후 왕실이나 귀족들이 헌납한 보물과 동대사의 불교용품들이 추가됐으나 일부는 소실되어 현재는 약 9,000여 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창원에 있는 백제와 통일신라 문화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제 논문으로는 △'정창원 금속공예의 연구현황과 과제(최응천, 동국대)' △'정창원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를 통해 본 신라 물품 교역(박남수, 신라사학회)'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나이토 사카에, 나라국립박물관)' △'정창원의 칠공(漆工) 기법(이난희, 국립민속박물관)' △'정창원 소장 〈화엄경론질〉과 심상(審祥)이 들여온 신라 사경(히가사 이츠토, 나라박물관)' △'백제와 일본 정창원 소장품(신숙, 한국전통문화대)' 등이 준비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정창원 소장품의 한반도 유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행선사 생사관, 삶·죽음 회통 이끌어"

박훈 연구원, 2월 28일

생사학 심포지엄서 주장

主人空, 선사 생명관 근본

'영원한 나' 사는 길 열어

주인공 관법, 生死一如 실천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생사관을 생사학(生死學)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훈 생사학아카데미 연구원〈사진〉은 2월 28일 치유협동조합 마음애터 생사학아카데미가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강당서 주최한 생사학 심포지엄에서 '대행선사의 생사관으로 본 삶의 지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의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한 발표 논문은 대행 선사의 사상에 내재된 생사관과 수행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는 대행 선사의 생명관 중심에는 '주인공(主人空)' 사상이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우리의 육신, 의식 그리고 의지가 뿌리인 참나에서 나타난 싹, 잎사귀, 가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며 "불성은 곧 선사가 설파한 주인공이며 이는 생명의 근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의 죽음관은 선사가 자주 강조했던 '육신은 옷'이라는 개념서 찾았다. '죽는다는 것은 헌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입는 것이며 생명의 근본인 주인공이 옷 한번 갈아입는다'게 대행 선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선사는 죽음이라는 것은 윤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설한다"며 "이는 불교의 생사관인 생사불이(生死不二)를 확연히 드러내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사의 죽음 수행론으로서 '주인공 관법'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자신의 근본이자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거기다 맡겨 놓고 오로지 관하라는 것이 대행 선사가 주장하는 죽음수행론"이라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우리 근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구심점으로 주인공이라는 수행 기반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 생사관은 불교의 생사관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생사관"이라며 "이는 현대인에게 외면되고 부정되는 죽음에 대해 다시 사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사별경험에서 성장과정(양준석)', '생명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김아리)' 등의 연구 논문도 함께 발표됐으며, 이찬수(평화통일연구소 교수), 임병식(싸나톨로지 회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교학, 현대적 응용 어떻게?

불교학연구회, 10일 논문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은 3월 10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충무로 영상센터 227호에서 '불교교학과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유정 스님(봉녕사율학승가대학원)의 '이부승제도와 식자마나교육의 중요성' △정상교(동국대 경주)의 '심즉아를 주장한 푸드갈라론자' △정현주(전남대)의 〈유식 20론〉에서 유식무경의 인지과학적 해명' △장성우(동국대)의 '〈본생경〉에 나타난 기업의 윤리경영' △정희경(동국대)의 '보조 지눌의 선교겸수설 재검토'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으로는 이자랑(동국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이필원(동국대), 최경아(울산대), 안환기(서울대), 김치온(진각대학원), 김한상(한국외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